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4, pp. 499-511,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499

#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강선경[1], 차유정[2*]
[1]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2]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Middle-aged Women

Sun-Kyung Kang[1], You-Jeong Cha[2*]
[1]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Ph. D. Completion, Dept. of Social Welfare,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요 약**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509명의 유효 표본을 선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은 인터넷 중독에 정적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는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조절변수로서 작용하였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도 높아지고,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에 따라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으로 중년여성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와 학제 간 융합연구를 강조하고, 인터넷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습관 등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생애주기, 중년여성, 인터넷 중독,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nformati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appraisal support) on the effect of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on internet addiction. The 509 samples were se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WIN26.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pression had a static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Informational support and material support,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served as a moder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It emphasizes differentiated welfare services and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that are suitable for middle-aged women's characteristics,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such as proper usage habits for internet use.

**Key Words :** Life cycle, Middle-aged women, 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B8100993).
*Corresponding Author : You-Jeong Cha(mikal530@hanmail.net)
Received March 28, 2022 Revised April 12,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 1. 서론

'우울'은 흔히 일상생활에서의 근심·침울함·실패감·상실감·무력감·수치감 등의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 상태와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를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설명되는 증상으로써, 우울에 있어서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과 임상적인 우울증을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우울은 간혹 한 번씩 일어나거나 일어나더라도 사라지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우울한 기분이 반복되어 나타나 병리적인 증상인 '우울증'으로 진행되며 자신을 잃게 되고, 강도가 극도에 달하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 '우울증'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문화나 인종에 따라 우울 증상의 체험과 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우울증의 발생요인에 대해 Beck은 우울증이 그릇된 인지체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Seligman은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사건을 본인 의지대로 통제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1]. 이러한 우울증은 중년기에 발현율이 가장 높고,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으면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다[4]. 중년기 여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갱년기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감소와 노화에 따른 현상으로 우울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가족 안에서의 역할변화 등에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느낄 경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3]. 중년기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더욱 더 수용하고 보다 폭넓은 발달로 성숙을 이룩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정서적 성숙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불안과 내적 긴장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Nathanson는 중년기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많은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5].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변한 일상 탓에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겪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증(Blue)'의 합성어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및 육체적 불편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2021년 경기연구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수준(48%)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6]. 2020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상태' 조사 또한 전체 응답자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이 50.7%, 남성이 34.2%로 여성이 남성보다 16.5% 높게 '코로나 블루'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7]. 또한 유엔(UN)도 코로나19 위협의 하나로 여성이 감염병 같은 재난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8].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보편적인 반응일 것이다.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인터넷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중독포럼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전후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조사' 에 따르면 사회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이른바 '행위 중독'의 위험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은 44.3%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는데 이들의 경우 정상에 비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콘텐츠 시청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 인터넷은 인간관계 안에서 얻지 못한 사회적 욕구를 간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실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게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사회적 욕구를 빠르고 쉽게 얻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10]. 따라서 현실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상공간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터넷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11,12]

인터넷 중독은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사용의 심각성을 논하기 위해 Goldberg가 물질의존에 쓰이던 중독 용어를 인터넷에 차용해 인터넷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등장하였고, Young은 인터넷 중독을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같은 물질에 중독되는 것과 같이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행동중독(Behavioral Addictions)'이라고 하였다[13,14]. 인터넷 중독은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의

일종으로써 통제력 상실, 갈망과 내성, 과다한 재정 문제, 학업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종국에는 금단과 내성과 같은 중독특징이 증가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등까지 손상에 이르게 한다[15].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Shaffer와 Bethune는 인터넷 중독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보았다[16]. 즉 불안정한 현대사회에서 내면의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보상 받으려는 심리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고 본 것이다.

2020년 인터넷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 19 이후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이용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17],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 19 시대에 인터넷 중독의 사회·심리·문화적 영향요인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8,19].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공간으로 도피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의 불안, 우울, 고립감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20,21].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oung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이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았는데, 우울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낮은 자존감과 동기저하, 승인 받고자 하는 욕구,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인터넷 사용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본 것이다[15,20] 국내연구에서도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 연구를 통해 우울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검증되었다[21-25]. 그러나 대부분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 초기 성년기를 다루고 있어 40대 이후의 연령층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우울과 인터넷 중독[26-28]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지지에 주목하였다. 이는 인터넷 중독의 많은 부분이 대인과의 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음에 근거하였다[29,30]. 사회적지지는 인간의 안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인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류된다[31]. 이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대처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적 완충효과로써 신체적·정서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2,4].

사회적지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Cohen과 Hoberman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을 둘러싼 대인관계에서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중요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Cobb은 '정보'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적지지를 첫째, 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정보, 둘째, 개인이 존경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하는 정보, 셋째, 네트워크와 상호의무에 속한다고 믿게 하는 정보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Hamilton과 Sandelowski도 사회적지지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로 언급하였다. 평가적지지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이나 생각들에 대한 동의로써 정의되며 사회구성원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에 대한 수용, 공감, 긍정적 자기 확인을 촉진시키는 피드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도구적 지지는 유형적지지(tangible support)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물질적 원조 또는 재정 및 가사업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4,31-34].

국내에서는 박지원이 사회적지지의 다양한 정의를 통합하여 사회적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 내렸다. 이를 속성에 따라 상황 중심의 실제적지지(사회적지지망),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지지형태),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지지욕구)로 구분하였다. 상황중심의 실제적 지지인 사회적지지망 차원은 사회적지지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변인으로 보았고,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인 지지형태 차원은 다양한 사회적지지 행위의 속성으로 실제적으로 제공된 지지를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도 반영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각된 지지로 분류하였다. 이에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인 지지욕구 차원은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지지망과 이들이 제공하는 지지형태가 곧 개인의 지지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욕구에 대해서는 따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지욕구 차원은 개인이 사회관계에서 느끼는 유대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주위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개인의 자아 지각 정도로 측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지각한 지지로 구분하였다[33,35]. 임정숙은 사회적 관계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된 물질적지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의 제공을

나타내는 애정적지지, 재미있는 것을 함께 할 타인의 유용함을 나타내는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 긍정적인 영향의 표현, 감정이입을 통한 이해,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격려, 조언, 정보, 안내 또는 피드백을 나타내는 정서적·정보적 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36].

이처럼 학자마다 용어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미시적인 측면부터 거시적인 내용까지 개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 개인에게 대인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신경체계를 안정시켜,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하는 지지원이 되어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 기술,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사회적지지가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상황을 완충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7-40].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중독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hilip는 오프라인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충분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상의 환경에 몰입하여 친밀감과 안전성에 대한 강화를 받으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41]. Israelashvili 등은 사회적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현실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이나 존중감, 유능감 등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갈망과 습관이 형성되어 결국에는 인터넷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42]. 국내연구로써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치가 낮아졌다[43-46]는 결과와 이에 상반되는 결과로 사회적지지와 SNS중독경향성은 서로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공존한다[47-50].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2016년 김효순·김서연·박희서의 '은둔형 외톨이 성향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과정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2016년 정경아의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2017년 박완경의 '성인의 문제음주,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관계 연구', 2020년 정승록의 '대학생의 SNS 이용동기가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1-54].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가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중독에 영향을 줄 때 다양한 심리변인이 연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지지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지형태에 따라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리적지지, 평가적지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서술한 한 바와 같이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영향요인인 '사회적지지' 변수를 투입하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적지지의 4가지 지지형태(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를 개별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실천현장에서의 개입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여성의 우울, 인터넷 중독,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각적지지)는 조절역할을 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문제인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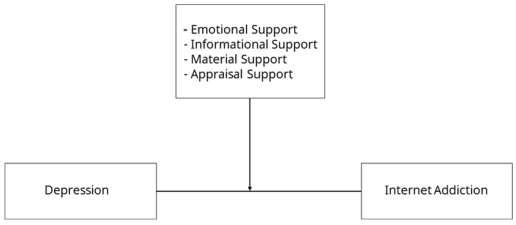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측정도구

#### 2.2.1 독립변수: 우울

원척도인 Beck의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민규와 이영호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성인우울 자가진단 척도(K-BDI Ⅱ)를 활용하였다. 한국어판 Beck 우울척도 (K-BDI Ⅱ)는 총 21문항으로 우울증상에 대한 자기 보고형 척도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0에서 3점(0은 나는 슬프지 않다; 1은 나는 슬프다; 2는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은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으로 측정되며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다. 본 연구의 우울변수 신뢰도 계수 Cronbach'$\alpha$ 값은 .93로 높게 나타났다.

#### 2.2.2 종속변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측정은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토대로 개발된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A)를 활용하였다.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KS-A)는 총 15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피곤한 만큼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하더라도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한다', '인터넷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4문항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인터넷 중독 신뢰도 계수 Cronbach'$\alpha$ 값은 .88로 나타났다.

#### 2.2.3 조절변수: 사회적지지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 측정은 박지원이 개발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지지 척도(Perceived Social Support through Othe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행위 유형에 따라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의 4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사회적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정서적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행위이며, 정보적지지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물질적지지는 개인이 필요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위, 마지막으로 평가적지지는 개인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alpha$ 값은 정서적지지 .94, 정보적지지 93, 물질적지지 .92, 평가적지지 .92로 원척도의 .9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진행한 "2021 중장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데이터이다. 원자료는 연구소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전국 7개국에 지점을 두고 국내외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집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이다. 조사대상은 40-50대 남녀성인이고, 표본추출은 편의할당 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 방식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총 1025(남성 516건, 여성 509건)건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여성 509건만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2.4 자료분석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 관계에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인 중년여성의 우울, 인터넷 중독,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중년여성의

우울과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간의 상호작용 항을 바론(Baron)과 케니(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진행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 변환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학년, 혼인상태, 거주지, 경제활동형태, 월평균 가구소득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중년여성 509명의 연령대는 40대가 256명(50.3%), 50대가 253명(49.7%)이다. 학년은 고졸이하 128명(25.2%), 전문(대졸) 331명(65.0%), 대학원이상 49명(9.6%), 무학 및 중퇴 등의 기타응답은 1명(2%)이다. 혼인상태는 미혼(비혼)이 96명(18.9%), 혼인유지는 374명(73.5%), 동거·이혼·별거 등 기타 응답은 39명(7.7%)로 기혼자가 대다수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는 308명(60.5%), 5대 광역시 거주자는 88명(17.3%), 기타 지역은 113명(22.1%)이다.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는 정규임금노동자가 223명(43.8%), 비정규임금노동자 88명(17.3%), 자영업자 43명(8.5%), 전업주부 155명(30.4%)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 26명(5.1%), 월 100만원 이상 월300만원 이하 112명(22.0%), 월300만원 이상 월 400만원 이하 94명(18.5%), 월400만원 이상 월 500만원 이하 97명(19.1%), 월 500만원 이상 180명(35.4%)으로 중위소득 평균 이상이 277명(44.5%)을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령(40대=1, 50대=2), 학력(고졸이하=1, 전문대·대졸이하=2, 대학원이상=3), 혼인여부(미혼·비혼=1, 기혼=2, 이혼 및 기타), 거주지(서울·경기·인천=1, 광역시=2, 그 외 지역=3), 경제활동구분(정규임금노동=1, 비정규 임금노동=2, 자영업 및 기타=3), 월가구소득(중위소득 미만: 월400만 미만=1, 중위소득 평균: 월400이상 월500만 미만, 중위소득 초과: 월 500만 이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와 우울, 인터넷 중독, 사회적지지는 상관계수가 낮은 편이었다.

Table 1. General matters of the subject to investigation (n=509)

| Sortation | Category | Count | % |
|---|---|---|---|
| Age | Ages 40 to 49 | 256 | 50.3 |
| | 50-59 years old | 253 | 49.7 |
| Academic background | Below the high school level | 128 | 25.2 |
| | Attending college/College graduation | 331 | 65.0 |
| | Graduate degree or higher | 49 | 9.6 |
| | Etc. | 1 | 2 |
| Marital status | Single | 96 | 18.9 |
| | Maintenance of marriage | 374 | 73.5 |
| | Etc. | 39 | 7.7 |
| Residence | Capital area | 308 | 60.5 |
| | Metropolitan city | 88 | 17.4 |
| | Etc. | 113 | 22.1 |
| Economic activities | Regular wage labor | 223 | 43.8 |
| | Non-regular wage labor | 88 | 17.3 |
| | Self-employment | 43 | 8.5 |
| | Full-time homemaker | 155 | 30.4 |
| Monthly income of family | Less than 1 million won | 26 | 5.1 |
| | Over 1 million won~Less than 3 million won | 112 | 22.0 |
| | Over 3 million won~Less than 4 million won | 94 | 18.5 |
| | Over 4 million won~Less than 5 million won | 97 | 19.1 |
| | Over 5 million won | 180 | 35.4 |

### 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인 우울, 인터넷 중독,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비례 관계로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와 인터넷 중독은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며, 부적(-)관계를 보였다. 물질적지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지형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4가지 지지형태 모두 인터넷 중독과는 반비례 관계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가 높으면 인터넷 중독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우울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표준화 변환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회귀모형은 1단계(F=25.593, P〈.001), 2단계(F=8.547, P〈.001), 3단계(F=18.76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4.8%(수정된 $R^2$은 4.6%), 2단계에서 7.8%(수정된 $R^2$은 6.9%), 3단계에서는 10.7%(수정된 $R^2$은 9.1%)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우울($\beta$=0.219, P〈.00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정보적지지($\beta$=-0.372, P〈.001)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물질적지지($\beta$=0.247, P〈.05)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적지지가 높을 때 인터넷 중독은 낮아지고, 물질적지지가 높은 때 인터넷 중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는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우울과 정보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beta$=0.427 P〈.01)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물질적지지간의 상호작용항($\beta$=-0.418, P〈.01)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조절변수인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는 독립변수인 우울과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조절변수인 정보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지만, 정보적지지가 증가하게 되면, 우울에 의해 증가하는 인터넷 중독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물질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데. 물질적지지가 증가하게 되면, 우울에 의해 증가하는 인터넷 중독도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509)

| Research Variable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 Correlation 1 | 2 | 3 | 4 | 5 | 6 |
|---|---|---|---|---|---|---|---|---|
| 1. Depression | 12.9823 | 10.5168 | 1 | | | | | |
| 2. Internet Addiction | 31.7328 | 7.0543 | .219** | 1 | | | | |
| 3. Emotional Support | 51.0373 | 9.4509 | -.421** | -.135** | 1 | | | |
| 4. Informational Support | 44.6660 | 7.8864 | -.409** | -.181** | .918** | 1 | | |
| 5. Material Support | 41.8919 | 8.1534 | -.367** | -0.085 | .907** | .855** | 1 | |
| 6. Appraisal Support | 43.5958 | 8.1050 | -.398** | -.122** | .932** | .880** | .909** | 1 |

**$p$〈.01, ***$p$〈.001

Table 3. Moderator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n=509)

| Stage | Variable | B | β | t | F | $R^2$ ($\triangle R^2$) |
|---|---|---|---|---|---|---|
| 1 | Constant | 31.733 | | 103.915*** | 25.583*** | 0.048 (0.046) |
| | Z-score(Depression) | 1.546 | 0.219 | 5.059*** | | |
| 2 | Constant | 31.733 | | 105.190*** | 8.547*** | 0.078 (0.069) |
| | Z-score(Depression) | 1.288 | 0.183 | 3.855*** | | |
| | Z-score(Emotional Support) | 0.546 | 0.077 | 0.512 | | |
| | Z-score(Informational Support) | -2.621 | -0.372 | -3.376*** | | |
| | Z-score(Material Support) | 1.742 | 0.247 | 2.192* | | |
| | Z-score(Appraisal Support) | -0.136 | -0.019 | -0.148 | | |
| 3 | Constant | 31.951 | | 100.805*** | 6.655*** | 0.107 (0.091) |
| | Z-score(Depression) | 1.422 | 0.202 | 4.229*** | | |
| | Z-score(Emotional Support) | 0.815 | 0.116 | 0.747 | | |
| | Z-score(Informational Support) | -2.867 | -0.406 | -3.696*** | | |
| | Z-score(Material Support) | 1.602 | 0.227 | 2.029 | | |
| | Z-score(Appraisal Support) | -0.165 | -0.023 | -0.178 | | |
| | Interaction term(Depression×Emotional Support) | -0.706 | -0.128 | -0.726 | | |
| | Interaction term(Depression×Informational Support) | 2.438 | 0.427 | 3.063** | | |
| | Interaction term(Depression×Material Support) | -2.453 | -0.418 | -2.694* | | |
| | Interaction term(Depression×Appraisal Support) | 1.051 | 0.187 | 1.046 | | |

Internet Addiction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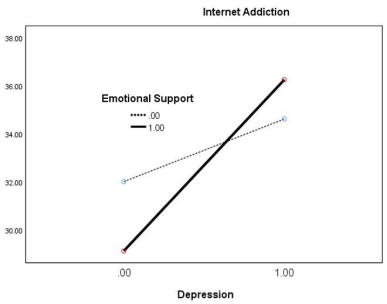


Fig. 2. Moderator effects of Emotion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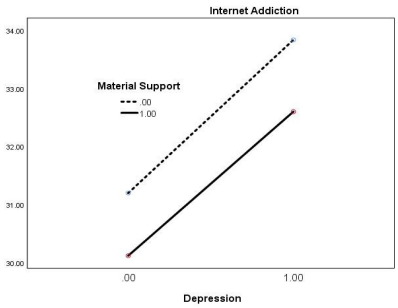


Fig. 3. Moderator effects of Material Support

Fig. 2와 Fig. 3는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울과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각각의 점수를 기준으로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즉, Fig. 2는 우울이 높을 때 인터넷 중독도 높아지고, 이때 정보적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물질적지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 인터넷 중독을 가중시키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사회적지지의 4가지 지지형태인 정서적지지·정보적지지·물질적지지·평가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 509명의 유효 표본을 선정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울과 인터넷 중독은 정적(+)관계로 우울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도 증가하였다. 즉 우울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23-25]. 중년여성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 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중년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우울에는 약물·운동처방[56,57]의 사회복지법제화가 요구되고, 역할갈등 또는 생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은 내적인 조화와 만족, 감사, 성찰 등과 같은 영적안녕[58]을 높일 수 있는 영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는 인터넷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물질적지지도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중독을 낮춘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43-46]. 환경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지지는 일상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중독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셋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의 4가지 지지형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인터넷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보적지지와는 정(+)적 관계를, 물질적지지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정보적지지와 물질적지지만이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켰고, 물질적지지는 우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켰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단독관계에서는 물질적지지도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지만, 우울과 결합(bonding)하는 상호작용 시 인터넷 중독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했다.

먼저 조사된 정보적지지는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조언, 충고 등 사회에 대한 지식의 제공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인정을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고, 물질적지지는 물건, 돈, 시간, 서비스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적지지는 우울의 상태에서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동했고, 물질적지지는 인터넷 중독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동했다. 중년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직면하는 신체적·심리정서적 상태, 부모역할 및 가족 내 지위 변동에 따른 독립적 자율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욕구와 필요, 성장발달 등의 동기에 따라 사회적지지 형태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이 우울감이 잦고, 인터넷 중독이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59,60]. 특히 정신건강에서의 남녀 차이, 남녀 집단 내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도출된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는 중년여성의 정서심리상태, 지지형태에 따라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관리와 사회적지지 제공서비스도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형 마음건강'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서심리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61], 생애주기에서 중년여성이 겪게 되는 다양한 관점(가족생활주기, 개인적 발달, 사회적 역할 등) 전반에 대한 학제 간 융합연구로 중년여성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중년여성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중년여성이 인터넷 중독에 몰입되는 영향요인을 이해하고 중독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예방적 접근은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대상 예방교육으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감독을 덜 받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할 경우가 많아 중독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60] '올바른 사용습관' 등의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그동안 성인대상 인터넷 중독 연구가 초기 단계라 다각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우울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 많이 검증된 사회적지지의 지지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지형태에 따라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위험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중년여성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써 우울, 인터넷

중독, 사회적지지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이 포함된 중년여성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복합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 및 다양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 REFERENCES


[1] S. M. Kwon. (2007). *Depression.* Seoul : Hakjisa Publishing.

[2] Fooden. (1983). *Women's Mental Health: Genes and Gender. 4th ed. The second x and Women's Health.* New York : Gordian Press.

[3] G. J. Park & K. H. Lee. (2002). A Structural Model for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69-84.*

[4] K. H. Yu & L. I. Jue. (201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pression, Meaning in Life, and Social Support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Sustainable E-learning Research, 5(2), 23-37.*

[5] Y. S. Chi, K. J. Lee & S. H. Kwahk. (2003). Development of Life-Scale for Middle Aged Full time Homemakers.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7(1), 23-39.*
UCI : G704-001513.2003.7.1.008

[6] E. W. Lee & Y. Kim (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on the Mental Health due to COVID-19.*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7] Korea Health Promotion Agency. (2020.10.14.). *'40.7% of Koreans experienced depression and anxiety due to COVID-19'.* Press Release. http://khealth.or.kr

[8]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 (2020). *'UN Women's Response to COVID-19'.*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6/brief-un-womens-response-to-covid-19#view

[9] Korean Addiction Forum. (2020). '*Long-term Covid 19 Increases Recurrence of Local Addicts'. http://www.addictionfr.org*

[10] C. H, Ko, J. Y. Yen, C. S. Chen & C. C. Chen.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sychiatric disord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opean Psychiatry, 27(1),* 1-8.
DOI : 10.1016/j.eurpsy.2010.04.011

[11] B. K. Bryant.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http://doi.org/10.2307/1128984

[12] J. H. Kwon, C. S. Chung & J. Lee. (2011). The effects of escape from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the pathological use of Internet gam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 113-121.
DOI : 10.1007/s10597-009-9236-1

[13] S. K. Park et al. (2018). *Understanding addiction and counseling practice.* Seoul: Hakjisa. Publishing.

[14] K. S. Young.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BMJ, 7,* 351-352.
DOI : 10.1136/sbmj.9910351

[15] K. S. Young. (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1(3),* 237-244.
DOI : 10.1089/cpb.1998.1.237

[16] H. J. Shaffer & W. Bethune. (2000). Introduction: Youth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3),* 113-114.

[17]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20). *2020 Survey on Game Users.* http://www.kocca.kr

[18] E. Y. Kang.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Response System for Residents of the Inhabitants of Gyeonggi Province.*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http://www.archives.go.kr

[19] S. Y. Park, S. M. Yang & S. Y. Park. (2021). Isolation Due to COVID-19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 amo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77,* 197-222.
DOI : 10.15300/jcw.2021.77.2.19

[20] E. M. Choi et al.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Anxiety, Impulsivity and Agg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8),* 329-341.
DOI : 10.5392/JKCA.2014.14.08.329

[21] H. D. Lee & H. Y. Hong.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lonelines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10),* 271-294.
UCI : G704-000387.2011.18.10.009

[22] S. Z. Roh et al. (2011). The Effects of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Depression, and Anxiety on Internet Addiction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12(4),* 25-53. DOI : 10.15753/aje.2011.12.4.002

[23] K. S. Oh, H. K. Lee & K. S. Lee. (2016). The Effect of Circadian Types and Depressive Mood on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23(4),* 173-178. UCI : G704-001487.2016.23.4.003

[24] S. K. Park & H. H. Chung.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Center For Korean Youth Culture, 58,* 87-113. DOI : 10.17854/ffyc.2019.04.58.87

[25] W. K. Park. (2020).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Internet Gambling Addiction in Adul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Depression.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11(6),* 153-168. DOI : 10.2143/HS21.1.6.12

[26]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20). *2020 Survey on Game Users*. http://www.kocca.kr

[27] E. Y. Kang.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Response System for Residents of the Inhabitants of Gyeonggi Province.*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http://www.archives.go.kr

[28] S. Y. Park, S. M. Yang & S. Y. Park. (2021). Isolation Due to COVID-19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 amo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77,* 197-222. DOI : 10.15300/jcw.2021.77.2.197

[29] J. Flavell & P. Miler. (1998). *Handbook of Child Psychology(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2,* New York: Wiley.

[30] L. Milani. D. Osualdella & P. D. Blasio. (2009). Qu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in Adolescence.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6),* 681-684. DOI : 10.1089/cpb.2009.0071

[31] Y. R. Tak, S. Y. Kim & B. S. Lee. (2003). Perceived soci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Needs, and Depression of Elderly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9(4),* 449-456.

[32] S. A. Kim & S. Y. Kim. (2011). The Impa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Mental Health of the Middle-Age Wome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 109-130. DOI : 10.21194/kjgsw..52.201106.109

[33]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34] E. K. Yu & H. S. Seol. (2015).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16(1),* 155-184. UCI : G704-001342.2015.16.1.006

[35] H. R. Kim, J. W. Kang & N. R. Kim. (2021). Development of Short Perceived Social Support through Others Scale (PSO-8): A Rasch Analysis. *Student Counseling Center of Sogang University, 42(1),* 51-70. DOI : 10.30593/JHUC.42.1.3

[36] J. S. Lim. (2017). *Loneliness of Elderly: Mediating Model of Ego Integrity and Social Support and Difference of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37] D. M. Kleckler. (1993).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among Adolescents: A Test of the Stress Buffering Hypothesis.* Doctoral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Dekalb, Illinois.

[38] E. Werner. (1989).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New York: Walter de Gruyter.

[39] M. C. Aldwin. (2007).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Press.

[40] Y. M. Jang & Y. K. Min. (2021). Effects of the Theory of Mind on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2(1),* 23-38.

[41] J. F. Philip. (2010).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Seoul.: NUN Publishing.

[42] M. Israelashvili, T. J. Kim & G. Bukobza. (2012). Adolescents' over-use of the cyber world - Internet addiction or identity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5(2),* 417-424. DOI : 10.1016/j.adolescence.2011.07.015

[43] M. S. Yoon & Y. K. Park. (2014).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o the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Addiction Tendency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42(3),* 208-236. UCI : G704-000500.2014.42.3.002

[44] K. P. Hong & H. S. Jeo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7(1),* 34-67. DOI : 10.15709/hswr.2017.37.1.34

[45] J. Y. Park & M. J. Kwon. (2018). The Convergence Effect of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53-460. DOI : 10.15207/JKCS.2018.9.4.453

[46] J. S. Kim, H. J. Moon & E. Choi. (2019). Impact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University Students' Lonelines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1),* 241-254. DOI : 10.22143/HSS21.10.1.18

[47] K. J. Yoo. (2018).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and SNS Addiction Tendency in Adul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Seoul.

[48] N. H. Kim. (2018). *Effects of Adolesc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ocial Support on SNS Addiction Pronenes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Level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49] Y. J.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SNS : Focused on Adults in Their 20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50] C. Y. Bae. (2020). Effects of Fear of Missing Out on SNS addiction tendency :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ju.

[51] H. S. Kim, S. Y. Kim & H. S. Park. (2016).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Oiettolie Propensity Adolescent in the Process of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1(10),* 149-456. UCI : G704-001619.2016.21.10.001

[52] K. A. Jung. (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Depression, Anxiety, and Impulsiveness and Their Smartphone Addic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53] W. K. Park. (2017).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Mental Health and Internet Gambling Addiction in Adults: Focused on Moderated Effects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54] S. R. Jeong. (2020). The Efects of SNS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on Jeju Island on Addiction Tendency: Focus on the Ease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55] H. A. Lee, C. M. Kim & D. H. Lee. (2016). Factors Influencing Middle-aged Women's Depression. *Korean J Health Promo, 16(1),* 1-10. http://dx.doi.org/10.15384/kjhp.2016.16.1.1

[56] Y. M. Lee, G. M. Kim & Y. H. Jung. (2014). Factors Affecting a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Middle-Aged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570-582. DOI : 10.5392/JKCA.2014.14.10.570

[57] G. Y. Go. & J. G. Han. (2017). The Effect of Vitamin C Supplementation and Walking Exercise on Depression and Empowerment of Middle-Aged Women. *Military Health Policy Research Center, 35(2),* 81-90. DOI : 10.31148/kjmnr.2017.35.2.81

[58] J. E. Heo. & Y. S. Tae. (2014). Influence of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2),* 181-190. DOI : 10.7475/kjan.2014.26.2.181

[59] E. Y. Koh & E. H. Kim. (2017). The Impacts of anxiety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19-429. DOI : 10.14400/JDC.2017.15.5.419

[60] K. E. Kim. (2020).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Office Workers : Focusing on Gender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6),* 861-873. DOI : 10.5934/kjhe.2020.29.6.861

[61] J. J. Jeong. (2018). 2nd Forum of the Department of Family Happiness Policy 'Mental health, status and promotion tasks for women in Gyeonggido'.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49-54.

강 선 경(Sun-Kyung Kang) [정회원]

· 1985년 2월 :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문학사)
· 1995년 5월 : 미국 콜럼비아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00년 5월 : 미국 콜럼비아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01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중독, 정신건강, 사례관리, 수퍼비전, 윤리와 철학
· E-Mail : skshin2000@sogang.ac.kr

차 유 정(You-Jeong Cha) [정회원]

· 2020년 8월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 2012년 2월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문화나눔다가치 대표
· 2012년 7월 ~ 현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문강사(다문화, 부모교육, 다양한 가족)
· 관심분야 : 다문화사회복지, 다양한 가족, 부모교육,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질적연구방법
· E-Mail : mikal530@hanmail.net